

## 인구변화 및 노년인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조 혜 중\*\*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pulation Change and the Aged in Korea and Japan\*

Hae-Chong Chough\*\*

**요약** : 본 연구는 세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비교기준을 제공해주는 신말사스론과 풍요론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인구요소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특정지역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거주 선호유형과 장래의 근심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구요소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선진형이지만 양자간의 격차는 매년 줄어들어감을 알 수 있다. Wilber의 이동기대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 높다는 사실이 광주·전남과 히로시마현의 사례지역에서 발견된다. 일본의 매장문화는 이미 사라졌으나 한국은 화장률이 아직도 3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사망으로부터 오는 인구감소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50세 이상 노인(또는 예비노인)의 거주선호유형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더 의존형이며, 독거의 외로움이 그 첫째 이유가 되는 것은 양국의 공통적 현상이다. 미래에 대한 근심도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 이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연령·학력·지역(시·군)과 관련된다. 노령사회에서의 노동력부족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노동력 부재가 아닌, 노인으로부터의 노동력 탈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현상에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미세한 인구변화에도 주의를 요한다. 말사스적 사고는 아직도 유효하며, 인구·자원·환경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지역문제가 아닌 전 지구촌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주요어** : 신말사스주의와 풍요주의, 인구집근도, Wilber의 인구이동기대치, 노년학·거주선호유형과 근심도, 인구의 관성법칙

**Abstract** : This study has three objectives. One of them is to debate on the incompatible Neo-Malthusianism and Cornucopianism, which give us a comparative gauge for analysis of the population elements in Korea and Japan. The other is to investigate how a variety of population elements are related to specific regions, Korea and Japan. And the last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idential preference patterns and the degree of care for the future life for the aged over 50 ages. Various elements in population show that Japan is of type superior to Korea, and that the gap between two countries is getting narrow every year. Wilber's migration expectancy is much higher in Kwangju-si and Chollanam-do than in Hiroshima-ken. Burial customs in funeral ceremony has been vanished in Japan, but only 30 percents in Korea is crematory. This burial customs being much still existent in Korea, the effect of the population decrease caused by the death is reduced. A case study through questionnaire on the residential preference patterns for the aged over 50 years old shows that Japanese than Korean are more dependent on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loneliness of solitary life' is the first reason in both countries. The degree of care for the future life is also remarkably higher in Japanese than in Korean. These are related in various ways to their ages, scholarships and local areas(si or gun). A general cognition in which the shortage of labour forces comes into existence in aged society is of misconception, because it comes from taking labour forces away from the aged, not from being old society.

Even a minute population change is worth notice since the inertia law is also applied to the population phenomenon. Malthusianism hold fairly good even now, and the notion is very important in which population,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 longer personal or a regional matters, but the global family's issues.

**Key Words** : Neo-Malthusianism and Cornucopianism, degree of population proximity, Wilber's migration expectancy, gerontology, residential preference pattern, degree of care, inertia law of population

\* 본 연구는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교육부 학술진흥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지리교육) 교수(Professor, Geography Major in Dept. of Social Studies,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인구현상은 자연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제 조건을 반영하는 특정시대, 특정지역의 사회환경적 소산이다. 인구는 곧 지표상에 있어 공간변화의 원천이며 주체가 되는 인간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사회현상과 그 변화과정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근본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의 인구규모·성장·구조적 특성과 공간분포, 그리고 이들의 변화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광의적으로는 지역특성을, 협의적으로는 인구의 지리적 특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인구성장과정과 패턴 및 이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인구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도 인구연구는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원·도시·질병·토지이용·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구촌의 생태계 질서보존 차원에 입각해서 인구연구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써 인구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는 극명해진다.

특정지역의 인구평가는 곧 그 지역의 문화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동시에 미래의 발전상에 대한 예측과 그 모형을 구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야말로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사회현상을 비교·평가하는 구체적 지표로서 아주 적합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생태적 환경과 인간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인구 문제에 대한 두 주류의 대립되는 견해-신말사스주의(Neo-Malthusianism)와 풍요주의(Cornucopianism)-에 대한 인구사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구학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인구문제의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상반되는 인구사상의 분석을 통해서 거시적으로는 과도한 인구가 왜 문제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비교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인구현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의 수·구조·분포·이동·성장 등 인구요소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특정공간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셋째, 노년인구를 중심

으로 그들의 거주선호유형 및 미래에 대한 근심도를 한·일간에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웃 선진국 일본과 선진국에 발돋움하려는 한국과의 인구 분석 비교연구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양국간의 상호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

먼저 인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가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대립되어온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두 대립관점에 접근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고는, 모든 인구는 그를 둘러싼 일정한 환경의 틀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전제이며 또한 "오늘날 인구질량의 크기와 변화의 속도가 과연 '삶의 질' 변화와 관련되는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 있어 신말사스주의와 풍요주의를 분석하는 것도 이를 통해 인가와 환경과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한·일간의 인구를 비교·평가하는 데 있어 확신할 수 있는 준거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과대한 인구수와 빠른 증가가 분명 환경과 함께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로서 성립되는 것이라면 지역의 인구수준 비교의 기준, 즉 어떤 인구가 더 바람직하고 높은 인구수준을 갖는 것인가가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양국의 인구분포와 그 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및 수륙관계적 위치를 고려하여 한국의 광주·전남과 일본의 히로시마현(廣島縣)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sup>1)</sup>

인구변화는 인구지수·인구탑·연령·지역별 분포·밀도와 접근도·집중도 등의 정태적 분석과 성장률·생명표·Wilber의 이동기대치(migration expectancy) 등의 동태적 분석으로 접근한다. 특히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노년인구비·노령화지수·생명표상의 노령화, 그리고 50세 이상의 예비노인 및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선호 행태유형과 미래에 대한 근심도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사례연구한다.

Lorenz곡선에 의한 인구집중도 분석에 있어서는 중심시(광주광역시, 히로시마시), 일반시(전남 6개 시, 히로시마현 12개 시), 군(전남 18개 군, 히로시마현 15개 군)별로 분석한다. 따라서 중심시의 경우, 시의 행정단위인 각 구(광주광역시 5개 구, 히로시마시 8개 구)가 단위지역(unit area)이며 일반

시와 군은 그 자체가 단위지역이 된다. 기타 자세한 분석법이나 사용된 공식은 해당 부분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의 시점은 한국의 경제 및 인구변화가 새로운 시작을 맞는 시기인 1960년을 기점으로 센서스해 또는 센서스기간 변화를 분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해당되는 시기도 포함한다.

### 3) 신말사스주의와 풍요주의

과대한 인구가 왜 문제될 수 있는가,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구나 관련한 두 가지 대립개념 -신말사스주의와 풍요주의-에 대해서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798년 등장한 '말사스(Malthus)인구론'은 이후 인구에 관한 커다란 관심과 문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 20세기 과학문명시대에 두 갈래의 상반된 주류와 하나의 중도론으로 나타났다. 두 주류란, 과도한 인구성장이 결국은 인류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안정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믿는 이른바 비관론파인 신말사스주의와, 인구성장은 경제나 환경문제와는 상관없으며 오히려 발전적 변화의 자극제로서 문제해결의 궁극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낙관론파로서의 풍요주의이다. 중도론파는 인구성장 그 자체에 대해 강한 긍정이나 부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환경문제만이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M. Lockwood, 1995). 그러나 중도론파는 인구증가에 대한 경각심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관론파의 아류(亞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대상은 비관론이나, 아니면 낙관론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가설의 성립과도 관련되며 인구연구의 필연성 및 본질과도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말사스 인구론은 산업사회와 인구격증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류의 모든 불행이 궁극적으로 인구나 식량과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말사스 인구론은 오늘날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른바 '말사스 함정'(Malthus trap)<sup>2)</sup>에 빠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소위 신말사스주의자들은 인구성장

이 자원의 고갈, 경제성장의 붕괴, 식량결핍과 영양부족, 환경파손 등을 초래하여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자료들은 삼림남벌,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로부터 오는 물과 식량자원의 부족 등이 모두 과잉인구와 관련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sup>3)</sup> 지구상의 인류를 압박하는 요소 가운데 기술과 소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지언정 폭발적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인구학자나 과학자들의 비관적 견해이다. 인구학자, 생태학자, 심지어 인구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입장을 취하는 경제학자 모두가 적어도 한가지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즉, 과도한 인구는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첫째 요소이며 양자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다(Moffett, 1994).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인구의 위기는 그것이 자원, 환경, 빈곤문제 등과 긴밀한 역학관계에서 부정(負的) 상호작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케 해준다. 이와 같이 위기의 재앙 편에 서서 인류의 장래를 우려하는 비관론자들로서는 P. R. Ehrlich, A. H. Ehrlich, L. Brown, D. Meadows, 그밖에 수많은 NGO 환경단체들이 있다. 한편, 이와는 상반적으로 E. Boserup (1965, 1981)과 C. Clark(1967)은 인구성장이 곧 새로운 기술창조와 자원개발을 필연적으로 유도하는 자극제라 주장한다. 농업의 발달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들 간에 피드백은 지속된다. 심지어 J. Simon (1981)은 인구야말로 최대의 자원이며 인구가 많을수록 인간의 노동력과 창조력, 그리고 발명의 재간도 그만큼 확보되어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과 같은 천재가 탄생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자원으로서의 인구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Bailey(1993)는 어떤 지역의 인구과밀이 미래예측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면 평방마일당 844명인 일본보다 47명에 불과한 Brazil이나 288명인 중국이 훨씬 부유한 국가가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또한 과밀국가에 속하는 네덜란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상반된 두 주류의 인구사상적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 바,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원과의 관계에서

인구를 보는 관점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체적 'QOL'<sup>5)</sup>에 주안점을 두고 인구를 보는 것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의 유한성에 비추어 혁신적인 대체에너지를 포함하는 어떤 자원도 인구에 의해서 소모되어가고, 자원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한 인구본질의 특성상, 인구는 자원에 대해서 대립적 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후자에 주안점을 두고 보았을 때 올바른 '과잉인구' 개념은 결국 '삶의 질'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만 가능하다. '삶의 질' 문제는 총체적 지역환경문제와 직결된다. 즉,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생활환경은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인자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풍요주의자의 입장이라면 인구문제라든가 환경문제와 같은 용어나 개념은 당분간 필요 없으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Simon의 말대로 많은 인구를 확보하여 여러 명의 아인슈타인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로부터 오는 인류의 행복이 과잉인구로부터 오는 고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수많은 고통받는 자를 뒤로한 채, 살아남는 자 만의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인가? 혹시라도 우리가 풍요주의자가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인구에 관한 일반적 가설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의 비교분석도 상당부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삶의 획기적 기술혁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인구는 꾸준히 관성의 법칙을 지속할 것이고 걸잡을 수 없이 팽창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은 나락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 2. 인구변화 - 정태적 분석 -

### 1) 지수 및 배증기간(倍增期間)

한국과 일본의 인구를 요소별로 분석해보면, 우선 인구규모에 있어서 한·일간의 격차가 심하다. 양국의 베이비 붐(baby-boom)이 끝난 1960년의 인구는 일본이 9400만 명으로 한국의 2500만 명보다 약 3.76배이며 2000년에는 각각 1억2,690만 명과 4,612만 명으로 2.75배에 달한다. 그러나 1960년을 기준으로 1960-2000년의 인구지수변화를 표 1에서 보면 한국은 1970년 123.6, 1980년 149.8, 1990년 173.7, 2000년 184.6의 대폭적 변화를 보인 반면, 일본은 112.0, 125.3, 132.3, 134.6의 소폭적 변화를 보인다. 이를 시·군부별로 보면 한국은 시부인구가 1980년에 3배, 2000년에 5.3배나 증가한 데 대해서 군부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0년에 거의 1/2로 줄었다. 일본은 시부가 1980년 1.5배, 2000년에 1.7배로 증가하고 군부는 1980-2000년에 큰 변화 없이 0.8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즉 인구의 도시지향현상은 양국 모두 존재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 대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80년 이래 뚜렷한 촌락인구의 감소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도시화 및 산업사회 역사가 오래되며 도·촌간의 인구분포변화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960-2000년의 5년 기간별 배증기간<sup>6)</sup>을 보면 한국은 1960-1990년은 35~49년의 매우 짧은 배증기간을 유지하다가 1990-1995년에는 133년으로 길어졌으나 1995-2000년에는 다시 80년으로 단축되었

표 1. 1960년 기준, 연도별 인구지수(1960-1995년)

연 도	한 국			일 본		
	지수	시부	군부	지수	시부	군부
1960	100	100	100	100	100	100
1965*	116.7	139.8	107.7	105.2	112.1	90.6
1970	123.6	181.6	101.0	112.0	126.4	84.4
1975	138.9	240.0	99.6	119.8	142.4	77.9
1980	149.8	306.3	88.9	125.3	149.4	80.5
1985	161.9	377.9	77.8	129.6	155.7	81.3
1990	173.7	461.8	61.7	132.3	160.3	80.8
1995	178.5	500.8	53.2	134.4	164.2	79.6

주: \* 한국은 1966년.  
자료: 인구센서스에 의한 필자 산출.

조 해 증

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1960-1975년까지는 68~51년 이었던 것이 이후 점차 길어져서 1990-1995년에 224년, 1995-2000년에는 330년이 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아직 불안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다 하겠다.

2) 인구구조

어떤 인구집단의 특성은 우선 집단의 크기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그 집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에 따라서 집단의 사회적 특성이나 역할은 달라진다. 인구의 내부구조는 인구탑,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등, 인구지리학에서는 주로 성과 연령구조로서 관찰될 수 있다. 그 중 노년 구조에 관한 것은 별도의 장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1) 인구탑<sup>7)</sup>

인구탑은 장시간에 걸친 인구사회현상을 시각적으로 함축해놓은 것으로 인구역사와 미래의 변화를 예측, 가능케 한다. 그림 1을 통해서 1960년과

1990년의 한국과 일본의 인구탑을 비교해보면, 1960년의 한국은 밑변이 길고 측면의 경사가 급한凹형사면(concave slope)으로 전형적인 후진국 형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10대 이하의 연령층이 급히 좁아지는 형태로서 1960년 당시 이미 선진국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35세 이상의 남성이 여성보다 폭이 좁은 비대칭적 구조로서 2차 세계대전의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은 한국에 있어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20대 후반부터 남녀 비대칭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일본은 2차 대전 직후 베를린의 인구탑(Peters and Larkin, 1989)과 비교해볼 때 독일보다 훨씬 인명피해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의 한국은 종형(鐘形)화 현상이 뚜렷하여 후진국형에서 탈피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0-4세 유아의 새로운 증가를 보이는 것은 2차 베이비 붐과 '늦둥이 붐'의 결과이다. 1995년의 일본은 종형을 완료한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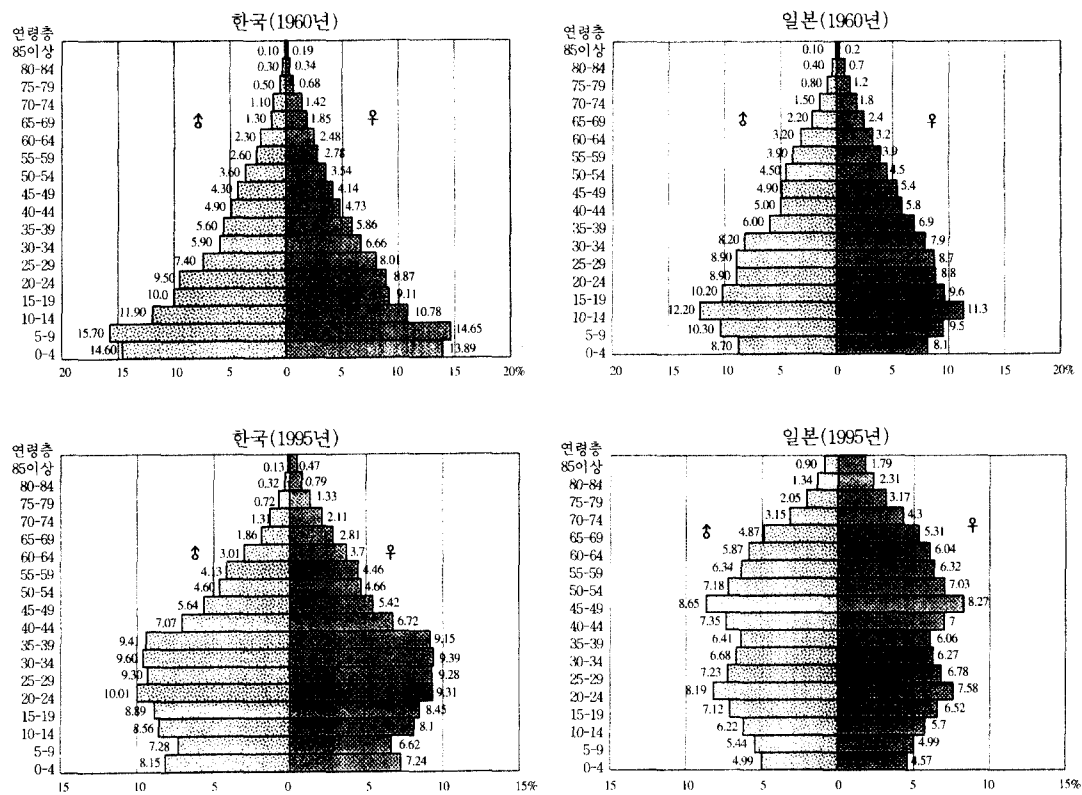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인구탑(1960·1995년)

선진국 형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2차 베이비 붐의 결과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sup>8)</sup>

성비는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성비가 갖는 인구학적 의미는 심장하다. 성비의 굴절이 심하다는 것은 사회적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결혼인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20세기 전반 한국의 성비는凹凸이 심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는 대체로 100~102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의 잔존으로 출생성비<sup>9)</sup>는 출산순위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어 전혀 그렇지 않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통적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근거로 한국과 비슷한 유교문화 전통지역인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이와 유사한 출산행태가 나타나는 반면,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하면서도 유교사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일본에서는 출생성비 굴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의 유교적 사학기관으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경상도에 세워졌고 서원의 수도 제일 많았던 경상도지역이 성선별적 출산행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徐文姬, 1995).

(2) 평균연령과 중위연령

평균연령이나 중위연령은 한 인구집단의 연령구조를 추상적이며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한 지표가 되는바, 이들의 변화를 주시함으로써 연령구조의 노령화 또는 연소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평균연령( $\bar{x}$ )을 구하는 공식은  $\bar{x} = \sum X \cdot nP_x / \sum nP_x$  단, X : 각 연령계급의 중앙치,  $nP_x$  : x세에서 n

세 간격(보통 5세간격) 연령계급의 인구수이다.

고로, 한국의 1995년 인구연령구조로부터 평균연령( $\bar{x}$ )을 구하면

$$\bar{x} = \frac{1,401,246,775.5}{44,553,710} = 31.45(\text{세})\text{이다.}$$

또한 중위연령( $M_a$ )은  $M_a = L + \frac{c}{f} \cdot (\frac{N}{2} - F)$ 의 공식에 의한다.

단, N : 총도수, F : 중위수가 있는 연령계급 이전까지의 총도수,

f : 중위수가 있는 연령계급의 도수, c : 계급의 구간,

L : 중위수가 있는 연령계급의 하한연령이다.

$$\text{고로, } M_a = 25 + \frac{5}{4,137,913} \left( \frac{44,553,710}{5} - 18,403,373 \right) = 29.68(\text{세})\text{이다.}$$

이 같은 식으로 구한 1960-1995년의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한국은 1960-1995년 평균연령이 7세 이상, 일본은 10세 이상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한국은 남성이 6.6세, 여성이 7.5세나 상향되었으며 성적 차별성을 보인다. 일본은 남성 10세, 여성 11세나 상향되었고 역시 남·여차를 나타낸다. 양국의 평균연령차는 1960년 4.6세에서 1980년 7.8세, 1995년 8.1세로 해가 갈수록 격차가 증대하고 있어 일본의 노령화는 한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연령에 있어서도 한국이 9.8세 상승한 데 대해서 일본은 14.1세나 상승하였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양국간에 대차가 있다. 1960년에는 한국이 19.9세, 일본이 25.6세로 5.7세의 격차가 난다. 격차는

표 2. 출산순위별 출생성비(1980-1998년)

연도	구분	전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1980	한국	105.3	106.0	106.5	106.9	110.2
	일본	106.0	105.8	106.2	106.1	106.0
1985	한국	109.4	106.0	107.8	129.2	146.8
	일본	105.6	105.8	105.2	106.0	105.1
1990	한국	116.6	108.6	117.2	190.8	214.1
	일본	105.4	105.5	105.4	105.2	106.0
1995	한국	115.5	106.1	114.3	205.9	237.7
	일본	105.6	105.5	105.6	105.6	106.7
1998	한국	110.1	105.9	108.0	145.6(셋째이상)	
	일본	105.4	105.1	105.6	105.3	108.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통계청, 1996, 생활속의 통계: 후생성 통계 정보부, 인구동태통계.

표 3. 평균연령과 중위연령(1960-1995년)

(단위 : 세)

연도	평균연령						중위연령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1960	24.4	23.6	25.1	29.0	28.3	29.8	24.4	23.6	25.1	29.0	28.3	29.8
1965*	23.0	22.6	24.2	30.3	29.6	31.1	23.0	22.6	24.2	30.3	29.6	31.1
1970	24.0	23.1	24.8	31.5	30.6	32.3	24.0	23.1	24.8	31.5	30.6	32.3
1975	24.8	23.9	25.7	32.5	31.5	33.4	24.8	23.9	25.7	32.5	31.5	33.4
1980	26.1	25.2	27.1	33.9	32.9	35.0	26.1	25.2	27.1	33.9	32.9	35.0
1985	27.7	26.7	28.7	35.7	34.5	36.8	27.7	26.7	28.7	35.7	34.5	36.8
1990	29.5	28.5	30.5	37.6	36.4	38.8	29.5	28.5	30.5	37.6	36.4	38.8
1995	31.5	30.2	32.6	39.6	38.3	40.8	31.5	30.2	32.6	39.6	38.3	40.8

주: \*한국은 1966년.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총무청 통계국, 1995, 我が國人口の概観 외 필자 산출.

해가 갈수록 증대되어 1970년에는 10.0, 1980년 10.3, 1990년에는 10.7세가 되며 1995년에는 다시 10.0세로 약간 둔화되었다. 한국은 1975년에 중년인구국<sup>10)</sup>이 되었으나 일본은 1920년대에 이미 중년국이 되었고, 1975년 한국이 중년국이 될 당시 일본은 노년인구국으로 진입하였다.

### 3) 인구분포

#### (1) 밀도와 접근도

인구밀도와 인구접근도는 특정지역내 인구집단의 절대적 평균분포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자는 단위면적당 인구수를 측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인구개체간의 평균분포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인구밀도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조(粗)인구밀도와 지리적 인구밀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구접근도

(PP)는  $PP = 1.0746\sqrt{I/D}$  (D : 인구밀도)의 공식에 의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인구밀도와 인구접근도에 있어서 1960년에는 한·일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연도별 변화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어 간다. 인구밀도에 있어 1960년 당시 양국 둘 다 254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한국이 378명, 일본이 314명으로 64명의 격차가 생겼고 1995년에는 117명, 2000년에는 122명의 격차로 확대되었다. 인구접근도 역시 1960년 양국이 67m였으나 1980년 한국이 55.3m, 일본이 60.6m로 한국이 5.3m나 더 높았고, 2000년에는 각 50.4m와 58.6m로 8.2m나 더 높아졌다. 즉, 한국이 일본보다 인구밀도나 인구간의 접근도가 더 높으며 양국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리적 인구밀도나 지리적 인구접근도에

표 4. 인구밀도 및 인구접근도(1960-2000)와 경지인구밀도 및 경지인구밀도로 본 인구접근도(1975-2000)

(단위 : 명/km<sup>2</sup>, m)

연도	한국		일본		경지인구밀도		경지인구밀도로 본 인구접근도	
	인구밀도	인구 접근도	인구밀도	인구 접근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60	253.9	67.44	253.5	67.49				
1965*	291.5	62.94	266.6	65.81				
1970	320.4	60.03	281.1	64.09				
1975	351.3	57.33	300.5	61.99	1,550	2,009	27.3	24.0
1980	378.2	55.26	314.1	60.63	1,705	2,250	26.0	22.7
1985	408.0	53.20	324.7	59.64	1,886	2,358	24.7	22.1
1990	437.3	51.39	331.6	59.01	2,059	2,567	23.7	21.2
1995	454.3	50.42	336.8	58.55				
2000	462.0	50.00	339.3	58.34				

주: \*한국은 1966년.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총무청 통계국 1999, 全國都道府縣市區町村別人口 외 필자 산출.

표 5. 사례지역의 인구밀도와 인구접근도(1960-1995년) (단위 : 명/km<sup>2</sup>, m)

연도	인구 밀도								경지인구밀도		인구접근도	
	전 남	시	군	광주시	廣島縣	시	군	廣島市	전 남	廣島縣	전 남	廣島縣
1960	295.1	1,428.7	252.5	-	259.0	796.0	140.5	-	1,090.0	1,944.8	62.6	66.8
1965*	334.1	2,041.6	282.7	-	270.3	858.3	138.0	5,817.3	1,171.6	2,106.3	58.8	65.4
1970	331.8	2,351.0	261.8	-	288.4	918.9	144.9	6,248.8	1,272.0	2,362.9	59.0	63.3
1975	329.8	2,741.2	251.7	-	313.0	726.8	127.0	1,267.2	1,101.4	2,946.9	59.2	60.7
1980	310.8	3,198.2	216.8	-	323.7	747.4	132.9	1,331.2	1,051.9	3,304.2	61.0	59.7
1985	306.0	2,727.2	192.6	4,211.0	333.0	788.3	121.0	1,416.9	1,026.6	3,568.6	61.4	58.9
1990	212.2	1,882.8	152.6	2,286.0	336.3	808.3	110.5	1,467.3	758.1	3,840.8	73.8	58.6
1995	184.3	506.4	152.7	2,597.7	340.0	822.7	108.8	1,497.2	618.3	4,081.8	79.3	58.3

주: \*한국은 1966년.

자료: 통계청, 1992,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총무청 통계국, 1995, 廣島縣의 인구 외 필자산출.

있어서는 역전되어 일본이 더 높다. 이는 일본의 신기산지 지형발달로 인한 경지면적의 협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와 히로시마현을 비교해보면 표 5와 같이 전남의 조인구밀도는 1966년의 334명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184명에 이른 반면, 히로시마현은 계속 증가하여 340명에 이른다. 전남은 당시 전국 평균인구밀도인 454명보다 훨씬 낮으나 히로시마현은 전국평균과 거의 같다. 인구접근도도 1960년에는 히로시마현이 4m 더 낮았으나 곧 역전되어 1995년에는 히로시마현이 무려 20m나 더 높다. 또한 전남은 79m로 전국 평균 50m보다 훨씬 낮은 반면, 히로시마현은 전국과 같다. 이는 한국의 이촌향도현상이 일본보다 두드러짐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조인구밀도의 시·군부 비교에서도 알 수 있다. 단 조인구밀도에 있어서 1995년의 시부와 1990년의 광주광역시 급감은 행정구역의 변화<sup>11)</sup>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현상이며 1985년 이후 시부의 감소는 광주광역시 또는 수도권의 상대적 증가로 흡수된 것이지 결코 역도시화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집중도

특정공간상의 하위지역간의 상대적 분포상태(집중도)를, 본 연구에서는 Davis지수법·도시순위규모법칙·Lorenz곡선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① Davis지수법과 순위-규모분포

수위도시와의 관계적 분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Davis지수(DI)는  $DI = P_1 / (P_2 + P_3 + P_4)$  (단,  $P_n = n$ 번째 순위의 도시인구( $n=2, 3, 4$ 인))의 공식에 의한다.

1960-1995년의 Davis지수 변화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서울의 중주성은 1970년 1.53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그 속도도 1990-1995년에 현저히 가속되어 196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도쿄(東京特別區部)는 1960년 1.39로서 서울보다 월등 높았으나 이후 하향, 지속하여 1995년에는 0.99를 기록하였다. 도시순위-규모법칙 체계가 정확히 적용될 때의 Davis지수가 0.92임을 감안하면 최근 일본의 도시체계는 순위-규모법칙에 접근된 이상적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까지 3순위였던 요코하마(横浜)가 1985년 이래 오사카(大阪)를 앞질러 2위로 부상한 것은 토오요오의 교외화현상에 의한 것이다.

한편, 권용우(1998)는 한국의 2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1920-1995년의 도시순위규모법칙에 적용되는 q값을 산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q값을 구한 결과 한·일

표 6. Davis 지수 및 상위 15개 도시의 순위-규모법칙의 q값(1960-1995년)

연도	한국		일본	
	(서울특별시)	(동경특별구부)	q값	결정계수
1960	1.09	1.39	1.3115	0.9981
1965*	1.36	1.29		
1970	1.53	1.22	1.5114	0.9989
1975	1.51	1.16		
1980	1.43	1.11	1.4065	0.9982
1985	1.39	1.08		
1990	1.35	1.02		
1995	1.19	0.99	1.1649	0.9980

주: \*한국은 1966년

자료: 인구센서스에 의한 필자 산출.



조 해 증

모두 상위도시의 종주성이 하락, 분산체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전형적인 종주형으로 최근 서울의 종주성이 급락하고 있지만 이를 서울을 중핵으로 한 위성도시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다.<sup>12)</sup> 일본은 1970년 q값이 1.1로서 순위규모법칙에 거의 일치하는 도시체계를 갖추었고 1980년 이후 q값이 1.0보다 낮아져 이미 분산체계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Davis지수로 보나 q값으로 보나 일본은 1970~1980년대 이미 이상적인 도시순위체계를 갖춘 셈이다.

② Lorenz 곡선

인구밀도가 일정공간의 평균분포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면 Lorenz곡선은 인구의 집중도 즉 편포상태를 측정하는 한 방법이다. 인구집중도의 측정이라 함은 주어진 시·공간에 있어서 인구분포의 불균형상태나 정도를 측정하는 것, 또는 불균형정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Duncan, 1957, 1958).

전남과 히로시마현을 대상으로 Lorenz곡선을 Duncan의 집중지수(index of concentration)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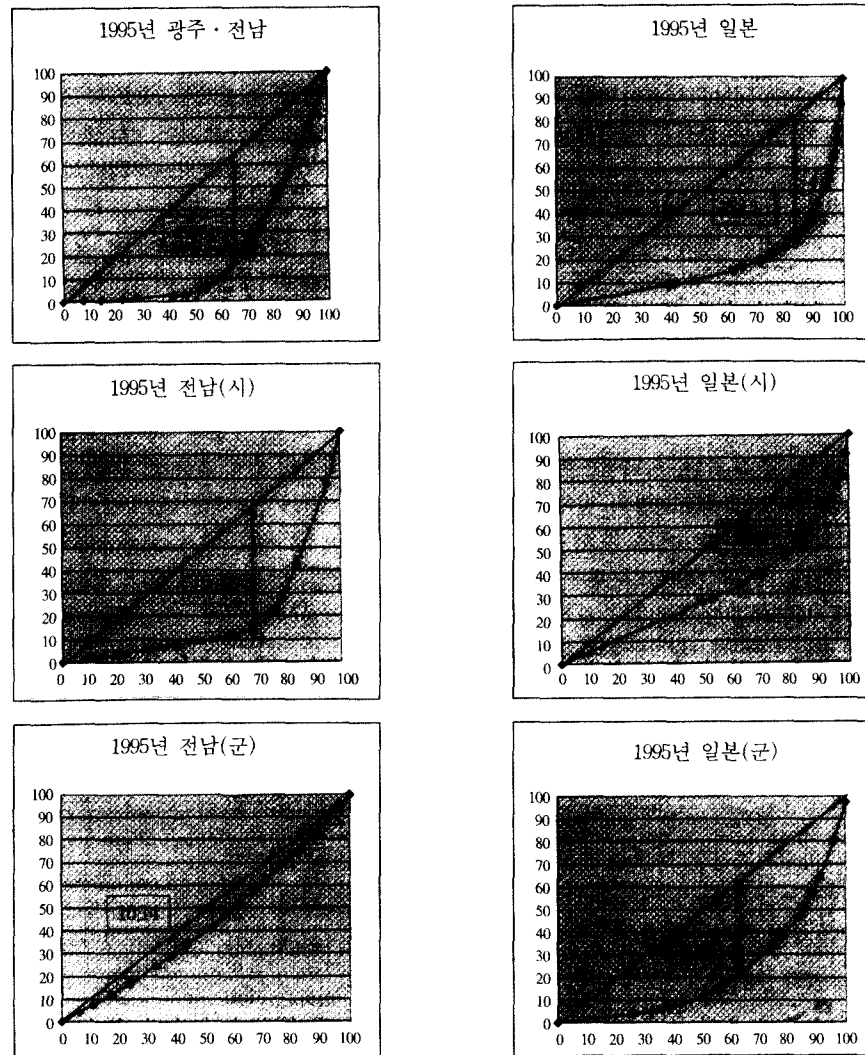


그림 2. Lorenz곡선 및 Duncan집중지수(1995년)

한 그림 2를 보면 전남(광주광역시 포함)<sup>13)</sup>의 집중지수는 1995년 47.7이다. 이는 1960년(16.1)에 비해서 31.6이나 높아진 것으로 히로시마현의 54.1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편, 1995년 전남(광주 포함)을 시·군별로 보면 53.8과 10.1로서 시·군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히로시마현은 30.9와 41.1로서 시지역이 군지역 보다 오히려 균등히 분포하고 시·군간의 격차도 적다. 즉, 히로시마현의 인구분포상태가 전남 보다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에서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광주 남구(70.82), 순천시(66.42), 광주 광산구(64.64), 광주 북구(64.43), 여천시(61.79), 광양시(59.81) 순으로 모두 시지역이다. 군지역은 화순군(41.08), 구례군(34.53), 장흥군(32.12), 담양군(32.01), 보성군(30.35) 순이다. 이로써 시지역은 군지역에 비해서 편포(偏布)함을 알 수 있다. 집중도가 가장 높은 광주 남구는 서구로부터 분구된 지역으로 백운동 일대의 밀집지역과 광주-목포간 고속화도로에 접근해 있는 곳이며 순천시는 도·농 통합시가 되면서 본래 순천시와 승주군 간에 인구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군지역 가운데 화순군은 무등산의 입지로 화순읍과 같이 교통입지조건이 좋은 지역과 불편한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는 데 기인하는 것이고, 장흥군은 광주와의 접근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에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등 3개 읍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안군(7.3), 여천군(10.3), 무안군(13.3) 등 해안지역은 집중도가 매우 낮은 균등분포지역이다. 이를 1980년의 집중지수(조혜중, 1983)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 광산구(29.8→64.6), 광양시(28.9→59.8), 화순군(22.5→41.1), 완도군(8.8→21.7) 등지이며, 크게 감소한 지역은 여수시(63.2→44.8), 감소지역은 광주 동구(68.1→56.2), 목포시(45.4→42.8) 등이다. 나머지는 약간 증가한 지역들인데 대체로 군지역은 거의 변화 없이 균등분포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송정동, 월곡동의 발달과 함께 하남, 비아, 임곡, 평동 등 출장소가 많은 지역이다. 광양시는 제철소 입지와 함께 강철, 석유화학 중심의 광양만 공업단지 조성, 동광양시의 발달에 기인한다. 여수시의 감소는 기존의 여수항 발달과 아울러 인접지역에 석유·화학공업중심의 여천시 발달로 외곽의 일부지

역들을 여천시가 흡수하면서 인구편포가 해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히로시마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지역에 비해서 군지역의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군들간에 지역편차도 큰 편이다. 佐伯군(44.8), 御調군(44.4), 安藝군(38.5), 賀茂군(35.6) 등은 높은 지역들인 반면, 新石군(3.7), 世羅군(4.6), 沼 軍(7.1) 등은 낮은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들은 모두 히로시마시, 吳시, 東廣島시, 府中市 등 도시 주변지역들로 도시 접경지역과 외곽지역간에 인구 편차가 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인구변화 - 동태적 분석 -

#### 1) 자연증가율과 성장률

인구변화의 본질적 요소인 출생과 사망과의 차이로서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변화 측정방법으로 자연증가율이 있으며 여기에는 인구변화의 또 다른 요소인 이동의 개념은 완전 배제되어 있다. 표 7은 1960-2000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자연증가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60년의 한국은 근대화 직전의 시기로서 조출생률 42.1‰<sup>14)</sup>, 자연증가율 30.0%였으며 합계출생률도 무려 6.0이나 되는 전형적인 인구후진국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61년부터 시작된 '조국근대화작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전개되면서 1965년에 조출생률 31.9‰로 출생률이 급강하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는 1980-1985년으로 출생률이 23.4에서 16.4로, 증가율은 16.7에서 10.2로, 5년 사이 전례 없는 급락을 보임으로써 이후 인구는 안정되었고 1990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증가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이른바, '늦둥이 붐' 현상의 조짐으로 1990-1995년 사이 인구는 120만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이 시기의 사망률 감소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출생률의 소폭증가에 더 큰 원인이 있다. 1999년에는 출생률 13.2‰, 사망률 5.2‰, 자연증가율 8.0‰로 또다시 하락하여 지금까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1920-1950년 자연증가율 15~20%수준으로 얼핏 중진국 수준으로 보이나 출생률과 사망률이 각각 30%와 15%를 웃도는 형편이어서 당시 인구측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sup>15)</sup> 그러나

표 7. 한국·일본 인구의 성장과 변화(1925-2000)

(단위 : %)

연도	연도별 자연증가율						연도기간별 인구성장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출생률	사망률	증가율	출생률	사망률	증가율	증가율	연평균성장률	증가율	연평균성장률
1925							—	—	—	—
1930							7.86	1.53	7.89	1.53
1935							8.74	1.69	7.45	1.45
1940							6.23	1.22	3.87	0.76
1944							6.47	1.58	0.30	0.06
1949*							—	—	16.59	3.12
1955							6.63	1.08	7.09	1.38
1960	42.1	12.1	30.0	17.2	7.6	9.6	16.08	3.03	4.69	0.92
1965**	31.9	8.6	23.3	18.6	7.1	11.4	16.82	2.63	5.20	1.02
1970	29.5	9.8	19.7	18.8	6.9	11.8	7.79	1.89	5.50	1.08
1975	24.6	7.3	17.3	17.1	6.3	10.8	10.30	1.98	6.95	1.35
1980	23.4	6.7	16.7	13.6	6.2	7.3	7.86	1.53	4.57	0.90
1985	16.4	6.3	10.2	11.9	6.3	5.6	8.05	1.56	3.41	0.67
1990	15.5	6.0	9.6	10.0	6.7	3.3	7.32	1.42	2.12	0.42
1995	15.6	5.5	10.1	9.6	7.4	2.1	2.63	0.52	1.58	0.31
2000***	13.2	5.2	8.0	9.6	7.5	2.1	3.53	0.87	1.07	0.21

주: \*이후 한국은 남한의 통계. \*\*한국은 1966년. \*\*\*자연증가율의 경우 한국은 1999년, 일본은 1998년.  
 자료: 통계청, 1991,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통계청, 2000, 도표로 보는 통계: 총무청, 2000, 일본의 통계 외 필자 산출.

한국의 근대화 시작 직전인 1960년에는 이미 자연 증가율 10% 이하로 하락, 선진국형 인구안정상태를 이루고 특히 1980년대 이후 2.3~2.1%의 정체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금까지의 인구변화상태로 장래인구를 추계 하면 한국은 2020~2025년 경 정지인구에 이를 예정인 바, 2005~2010년 정지인구에 이를 일본에 비하면 15년 정도 늦다.

한편, 1925-2000년의 기간별 증가율 및 연평균성장률<sup>16)</sup>을 보면 한국의 경우 1949-1955년의 사회혼란기에는 증가율 6.6%, 연평균성장률 1.1%의 최저 수준이었고 1955-1960년은 전후(戰後)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연평균성장률이 3.0%로 급등하였으며 이후 1955-1975년의 기간은 심한 요철(凹凸)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80-1985년에는 약간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1990-1995년에는 증가율이 7.3%에서 2.6%로, 연평균성장률이 1.4%에서 0.5%로 급락하고 있다. 1980-1985년 약간의 상승은 2차 베이비 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90-1995년은 연평균성장률이 드디어 1.0%이하로 하락한 시기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한 결혼율 및 출산율의 저하, 혼연연령의 상승,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결혼의 기회비용 증대 등 한국의 인구사회적 변화

추세로 보아 합리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앞의 심한 요철변화는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하는 인구발전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sup>17)</sup> 한편, 1995-2000년에는 전기간(1990-1995년)보다 약간 상승하였는바, 이는 새천년에 출산하고자 하는 이른바 '즈믄둥이 붐'의 결과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일본은 1935-1940년에 성장률이 급락한 후 1940-1945년 연평균 0.06%의 최저성장률을 보였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온 베이비 붐으로 1945-1950년에는 연평균 3.12%로 급성장하였고, 1950-1955년 다시 급락하였다. 1960-1965년 증가율 5.2%, 연평균증가율 1.0%로부터 조금씩 증가폭이 커졌으나 1975년 이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2000년에는 각 1.1%와 0.2%의 거의 정지인구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앞서 베이비 붐을 맞이하였고 한국보다 약간 더 높은 16.6%와 3.1%의 최고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1970-1975년의 2차 베이비 붐으로 연평균성장률이 1.1%에서 1.4%로 상승하였다. 양국 모두 종전 직후 5년 사이 베이비 붐을 초래하고 그 후 또 5년 사이 성장률이 급락하며, 베이비 붐 25년 후에는 베이비 붐어(baby-boomer)가 베이비 프로듀서(baby-producer)로 전환됨으로써 1

차보다 그 정도는 낮지만 재차 다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공통성을 보여준다. 이는 전쟁의 사회현상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양국의 출산연령이 25-30세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시종 한국과는 현저히 비교되는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구변화과정 중에 양국 모두 도시인구 증가와 촌락인구 감소라고 하는 인구역학적 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름으로써 선진화 하는 한국과 이미 오래 전에 선진화 돼있는 일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양국은 사회현상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의 관성법칙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2) 지역별 성장률 변화

인구분포변화는 비교적 단기간별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1960년-2000년 양 시점의 40년간 지역별 변화율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시 전기(1960-1980년)와 후기(1980-2000년)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한국의 2000년 현재의 행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도별 변화율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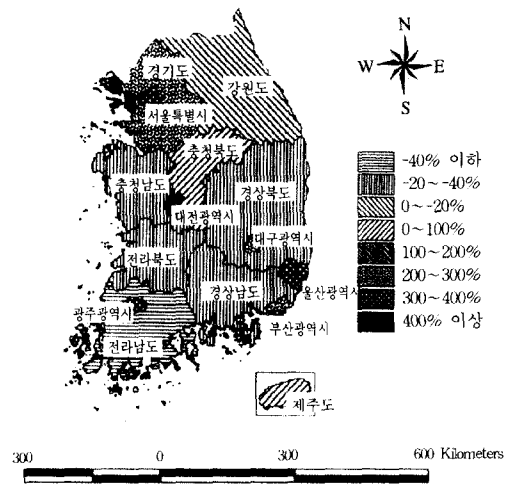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시·도별 인구분포변화(1960~2000년)

1960-2000년의 40년 동안 인천광역시의 518% 증가를 필두로 대전광역시 497%,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300~400%, 경기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200~300%, 그리고 제주(82%), 충북(7%)도 증가하였다. 전남은 44%의 감소를, 나머지 도는 20~40%의 감소를 보인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대도시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촌락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증가지역은 전기(1960-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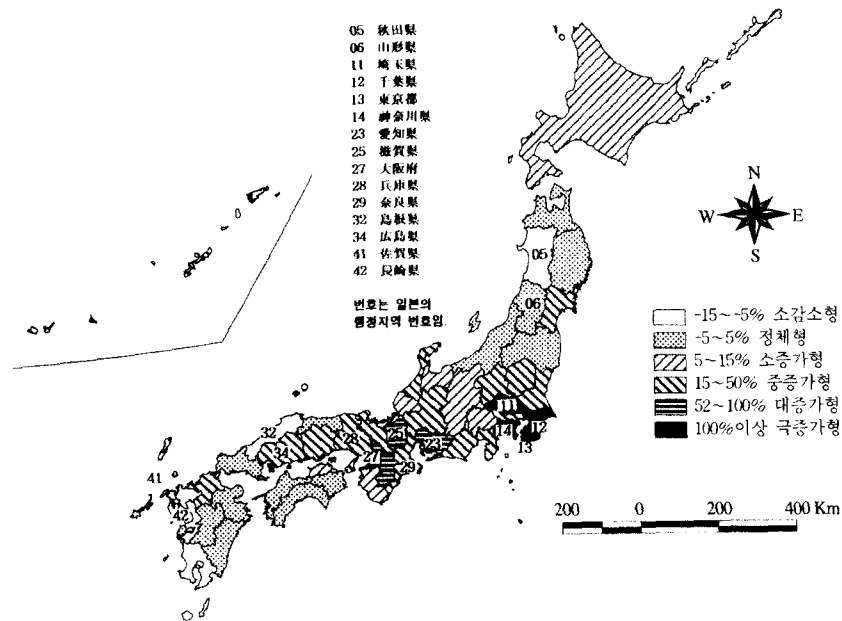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都道島縣별 인구분포변화(1960-2000년)

조 해 종

년)·후기(1980-2000년) 통틀어 감소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특히 전기에서 많은 증가를 하였다. 감소지역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후기에 많은 감소를 하였다. 충청북도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타도와는 달리 분도(分道)된 광역시가 없기 때문이며 제주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역시 같은 이유,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지역의 배출요인을 압도한 때문이다. 이로써 도·촌간의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격차, 산업화 및 소득증대에 따른 지속적 대도시화 현상, 관광기능의 인구흡인작용,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화가 지역인구규모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에 비하여 증가율이 훨씬 낮다. 埼玉縣(186%), 千葉縣(157%), 神奈川縣(146.6%) 등 東京灣을 둘러싼 지역은 매우 높은 지역이고 奈良縣(85%), 愛知縣(68%), 大阪府(60%), 滋賀縣(60%), 兵庫縣(42%) 등 大阪灣~伊勢灣일대의 近畿해안지역은 비교적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島根縣(-14%), 長崎縣(-14%), 秋田縣(-11%), 鹿兒島縣(-9%), 佐賀縣(-7%), 山形縣(-6%) 등 47개 都道府縣 중 東北, 中國, 四國지방의 12개 현은 마이너스성장을 한 지역이다. 한국에 비해서 증가율도 낮고 감소율은 특히 낮은 편이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이 전기에 많은 증감을 보인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이다.

3) Wilber의 인구이동 기대치(migration expectancy)

모든 동물이 다 그러하듯이 생태적 환경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있어서도 본능적으로 이동(movement) 또는 이주(migration)하려는 성향이 있다. "인간의 불행의 단서는 인간이 그의 방에 조용히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데 있다"고 말한 17세기 파스칼의 말(John R. Weeks, 1994)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이주성향을 비판함과 동시에 안주(安住)와 사색(思索)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G. W. Wilber(1963)는 미국을 연구지역으로 해서 연령별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치를 구한 바 있다. 즉, x세의 연령에 도달해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이주할 가능성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_x = (\sum M_x \cdot L_x) / l_x$$

$E_x$ : x세의 연령에서 이동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M_x$ : x세의 연령에서 발생하는 이동률(migration rate)

$L_x$ : x세에서 x+1세까지의 생존인-년수(person-year lived)

$l_x$ : 출생 cohort 중에서 x세까지 생존해 있는 수, 즉 x세의 인구수

이상의 공식에서 특정 시·공간의 인구가 출생에서 사망까지 즉, 일생동안 몇 번의 이동을 결행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우선 1995년의 전라남도 인구의 연령별 이동기대치를 구해보면 표 8과 같다.

따라서, 전라남도 인구가 일생동안 이동할 가능성( $E_0$ )은

$$E_0 = [(0.2459)(495,635) + (0.1951)(493,915) \dots + (0.0736)(270,281)] / 100,000$$

= 11.96 (단,  $l_x = l_0$ 로서 0세의 인구수이고 생명표상의  $l_0$ 는 기수(基數) 100,000 명을 의미함)이다.

즉, 1인당 평균 약 12회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95년 현재 전라남도·광주광역시·히로시마현 주민의 평생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동기대치

표 8. Wilber에 의한 전남인구의 연령층별 이동기대치 (1995년) (단위: 명, 회)

연령	이동자수 (A)	인구수 (B)	이동률 (C=A/B)	$L_x$	이동기대치 (C· $L_x$ )
0-4	32,805	113,384	0.2459	495,635	1.22
5-9	25,647	131,477	0.1951	493,915	0.96
10-14	22,972	183,221	0.1254	493,000	0.62
15-19	22,373	189,399	0.1181	491,644	0.58
20-24	53,284	170,603	0.3123	489,585	1.53
25-29	59,654	139,392	0.4280	487,097	2.08
30-34	39,561	146,810	0.2695	484,073	1.30
35-39	28,746	149,235	0.1926	479,993	0.92
40-44	16,297	119,175	0.1367	473,860	0.65
45-49	11,150	118,394	0.0942	464,772	0.44
50-54	8,268	115,897	0.0713	451,607	0.32
55-59	7,596	132,485	0.0573	432,843	0.25
60-64	6,604	115,738	0.0571	406,604	0.23
65-69	5,721	86,077	0.0665	369,357	0.24
70-74	4,425	63,830	0.0693	315,871	0.22
75-79	2,782	36,777	0.0756	244,883	0.19
80+	2,519	20,649	0.0736	270,281	0.20

자료: 통계청, 1995년 생명표; 통계청, 1995년 인구이동 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센서스 등에 의한 필자 산출.

표 9. Wilber에 의한 시·도·縣 내·외별 이동기대치(1995년) (단위: 회)

	전 남			광 주			히로시마縣		
	이동기대치	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이동기대치	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기대치	縣내 이동	縣외 이동
T	11.96	7.01	4.95	16.99	11.67	5.32	3.73	2.10	1.63
♂	11.35	6.69	4.66	15.91	10.89	5.01	3.99	2.11	1.88
♀	12.77	7.42	5.35	18.05	12.43	5.62	3.47	2.08	1.38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이동통계연보; 후생성 大臣官房 통계정보부·후생통계협회, 平成8年(1996)간이 생명표: 廣島縣, 平成7年(1995), 廣島縣인구이동통계 조사보고; 인구센서스 등에 의한 필자산출.

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 전라남도과 히로시마현은 각각 11.96회와 3.73회로 전라남도의 기대이동빈도가 3배 이상 높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무려 17회나 된다. 3지역 모두 남녀 공히 시(도·현)내이동이 시(도·현)외 이동보다 높다. 성별로 보면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와 여성의 기대이동빈도가 더 높은 데 반하여 히로시마현은 남성이 더 높다. 표 9를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남성의 일생동안 이동빈도 11.35회 중 2.09회가 25-29세층에서 발생하여 가장 높고, 다음이 30-34세층(1.38회), 0-4세층(1.22회)서 나타난다. 여성은 20-24세 연령층(2.17회)에서 가장 높고, 25-29세층(2.08회), 30-34세층(1.23회) 순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남·여 구별 없이 모두 전라남도의 남성과 같다. 즉, 남성의 결혼·직업·직장·구직에 따른 인구이동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가장 탁월하지만 전라남도 여성은 20대 초반에서 가장 현저하다. 0-4세나 5-9세층의 이동은 부모의 이동에 수반되는 자녀이동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히로시마현은 남·여 모두 20-24세 연령층의 20대 초반에 탁월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히로시마현의 평균 초혼연령<sup>19)</sup>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결혼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혼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경제적 이동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생애주기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한국에서는 20대 후반, 일본에서는 20대 초반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출지(origin)와 전입지(destination)의 소득수준 차에 의한 都道府縣별 인구이동 지향성을 분석한 王德(1994)의 연구에 의하면 廣島縣, 宮城縣, 福島縣, 鳥取縣, 岡山縣 등은 광역중심도시권과 그 인근지역으로 소득수준 중위지역이며 이 지역에서의 전출이동은 고소득 지역으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그 지향성이 약하거나 연도별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본

표 10. 한국의 시·도별 인구이동기대치(1995년) (단위: 회)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 국	13.5	12.7	14.3
서 울	16.9	15.8	17.9
경 기도	13.6	12.7	14.4
인 천	13.2	12.3	14.1
강 원도	12.7	11.9	13.5
대 구	14.9	13.9	15.9
경 북	10.7	10.1	11.4
부 산	13.2	12.4	14.0
경 남	11.1	10.5	11.7
대 전	15.8	14.7	16.9
충 남	9.9	9.2	10.8
충 북	11.7	11.0	12.4
제주도	10.7	10.1	11.3

자료: 통계청, 1995년 생명표; 통계청, 1995년 인구이동 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센서스 등에 의한 필자 산출.

연구지역인 히로시마현은 일본 내에서 다소 인구이동이 낮은 지역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광주·전남을 표 10과 비교해보면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이동기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전남은 도 가운데 경기도, 강원도 다음으로 높다. 대체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4. 노년인구증가의 장묘문화

##### 1) 노년학의 성립과 관련기구의 발달

일찍이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노년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노령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노령자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 연구의 필요로 노년학(老年學, gerontology)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노령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A. Quetelet나 Sir

F. Galton 등에 의한 수명측정학(壽命測定學)으로부터 시작되었다(町村自治研究會, 平成1). 이후 주로 미국, 영국에 의해서 노년인구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이나 학회<sup>21)</sup>가 설립되고 노령화의 사회, 경제, 인구적 현상과 노인병·노인연금·노후생활 및 건강·노인복지문제 등에 걸친 연구와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1950년에는 '제1회 국제노년학회'가 벨기에의 Liege에서 열렸다. 1991년 UN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5대 원칙<sup>21)</sup>에 합의하였고 1992년 총회에서는 드디어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그리고 매년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세계 노인의 해'의 주제로서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의 지향(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을 설정함으로써 노령화가 다차원·다분야·다세대에 걸친 문제(總務廳, 平成12)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다차원이란,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 모두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존지향적 단계를 넘어서서 물질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심리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갖는다는 것이다(이가옥 등, 2000).

한국은 원래부터 경로효친 사상을 근본으로 사회구조특성을 이루어 온 나라이름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적 사회사상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노인에 관한 연구는 1968년 '한국노인병학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75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76년 '노인복지연구소, 1978년 '한국성인병학회'와 '한국노년학회'가 설립(장인협·최성재, 1987)되면서 점차 발전하였다. '세계노인의 해'에 맞추어 1999년에 '21세기 노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특히 1999. 6. 8.~6. 11의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노년학대회'를 서울에서 개최, 한국 노인복지의 위상을 한 차원 높였다(보건복지부, 2000).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1959년 '제1회 일본 노년학총회'를 개최하였고 1972년에는 일본 최대 노년학 연구기관으로서 '東京都老人總合研究所'를 창설하였으며 한국노년학회 설립해인 1978년에는 '제 12회 국제노년학회'가 동경에서 열렸다. 1987년에는 앞의 '東京都老人總合研究所'가 '日本高齢社

會總合研究センタ'로 확대 개편되어 노령자의 복지·의료·주택·여가·문화활동·노령자 인구변화 및 상태 등 다양한 종합적 연구를 하고 있다(町村自治研究會, 1989). 또한, '세계 노인의 해'와 관련하여 '關係省廳連絡會議'를 설치, 제반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기념우표와 포스터, 마스코트(mascot character) 등도 제작하였다(總務廳, 平成12).

## 2) 인구구조의 노령화

노령화란 노년인구의 상대적 증가현상을 일컫는바, 그 정도에 따라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 또는 노령사회(aged society)라 한다.<sup>22)</sup> I. Rosow에 의하면 노년기는 일생에 있어서 연령별·성별로 본 역할계열의 최종단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대체로 60세 정도에서 시작된다(嵯峨座 晴夫, 平成9)고 하는 노령자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학적으로는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사용한다.

한·일의 노년인구비 변화 및 미래를 투시한 표 11을 보면 한국은 1960년 노년인구비가 2.9%<sup>23)</sup>로서 일본의 5.7%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1995년에 이르러서야 1960년 당시 일본 수준과 비슷한 5.9%를 보인다. 또한 일본은 1970년에 7%를 넘어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1995년에는 14%를 넘어 노령사회가 되었으나 한국은 2000년에 노령화사회에, 그리고 한국이 정지인구에 이를 예정인 2022~2023년에야 노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한·일간에는 대략 30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전환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한국이 22~23년, 일본이 24년<sup>24)</sup>으로써 노년인구 증가속도는 거의 동일하다. 이는 영국 46년, 이태리 59년, 스웨덴 82년, 프랑스 115년(UN, 1994;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 1996)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인 것이다. 이를 전·후기 노년인구비<sup>25)</sup>로 나누어 살펴보면 1975년의 한국 전기노년인구비(2.5%)와 일본 후기노년인구비가 같고, 1995년만을 본다면 전기노년인구는 일본이 한국의 2배, 후기노년인구는 3배나 된다. 즉,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월등 인구노령화 되었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그림 5를 통해서 1965~2000년의 35년 동안 기간별

표 11. 노년인구비(1960-2000년)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노년인구비	전기노년	후기노년	노년인구비	전기노년	후기노년
1960	2.9	-	-	5.7	4.0	1.7
1965	3.3	2.4	0.9	6.3	4.4	1.9
1970	3.3	2.4	0.5	7.1	4.9	2.1
1975	3.5	2.5	1.0	7.9	5.4	2.5
1980	3.9	2.8	1.1	9.1	6.0	3.1
1985	4.3	3.0	1.3	10.3	6.4	3.9
1990	5.0	3.4	1.5	12.0	7.2	4.8
1995	5.9	4.1	1.9	14.5	8.8	5.7
2000	7.3	5.0	2.3	17.3	10.2	7.1
2005	8.7			19.6		
2010	10.0			22.0		
2015	11.3			25.2		
2020	13.2			26.9		
2025	16.3			27.4		
2030	19.3			28.0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1997년 1월 추계)의 중위(中位)추계인구 인구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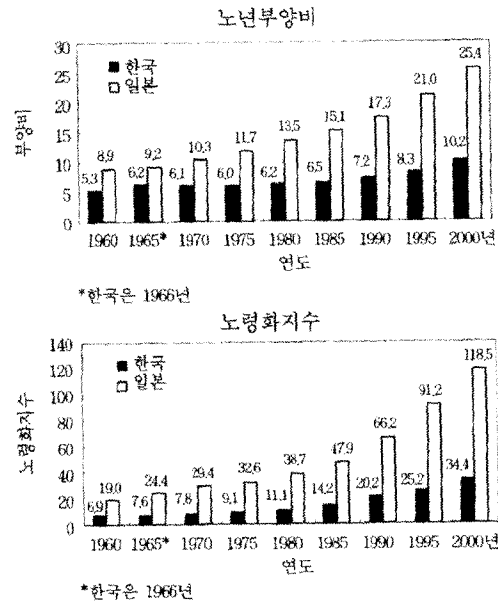


그림 6.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연평균노년인구성장률과 연평균인구성장률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성장률 자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평균인구성장률이 급감한 반면, 노년인구성장률은 급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960년-2000년에 걸쳐 10년 간격의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sup>26)</sup> 변화를 그림 6에서 보면 노년부양비에 있어, 한국은 1960년 5.3에서 2000년 10.0으로, 일본은 8.9에서 25.3으로 변화하였으며 10을 상회하는

시기가 일본이 1970년인 데 대해서 한국은 30년 후인 2000년이다. 또한 노령화지수로 보면 한국은 6.9에서 32.9로, 일본은 19.0에서 117.6으로 대폭 변화하였다. 일본이 한국보다 노령화가 훨씬 일찍, 그리고 많이 진전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3) 생명표(生命表)상의 노령화

생명표상에 나타난 여러 정보를 통해서도 노령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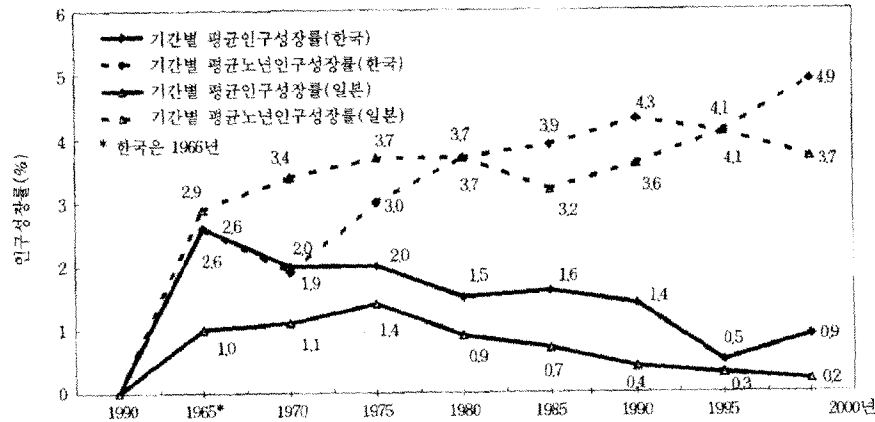


그림 5. 기간별 평균인구성장률과 노년인구성장률(1960-2000년)



조 해 증

시 기대여명(수명)과, 일정수의 50세 연령의 예비 노인이 실제 노년인구가 될 때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수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기로 한다. 표 12에서 기대여명을 보면 한국의 경우 1979년 남성 62.7세, 여성 69.1세로 여성이 6.4세 길고, 일본은 남성 73.5세, 여성 78.9세로 역시 여성이 5.4세 더 길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남성 10.8세, 여성 9.8세 더 길다. 양국 모두 양성간에 5~6년의 수명차가, 그리고 양국간에는 남·녀 모두 10년의 수명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999년에는 양성간의 수명차가 한국은 7.5년, 일본은 6.9년으로 더욱 커졌으며 양국간의 수명차는 5년으로 단축되었다. 일본이 1997년 현재 세계 최장수 국가(UN, 1998)임을 감안할 때 한국인의 수명 또

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50세 예비노인 1,000명을 기수(radix)로 이들이 실제 65세의 전기노인, 75세의 후기노인, 85세의 말기노인으로 각각 진입할 수 있는 생존기대수를 보면 표 13과 같다. 한국의 경우 1979년에 전기노인은 남성 692.5명, 여성 854.6명이 될 것이며 양성간에는 23.4%의 차가 발생한다. 1999년에는 남성 813.3명, 여성 928.2명이 될 것이며 양성간에는 14.1%의 차가 발생한다. 즉, 생존기대수는 점점하고 양성간의 차이는 점감(漸減)한다. 이는 후기노인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특히 양성간 차이가 큰 폭으로 감소해감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시 똑같은 양상이나 전·후·말기노인 기대수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월등 많으며 양성간의 차이

표 12. 출생시 기대수명(1979·1989·1999년) (단위 : 세)

	1979			1989			1999		
	남	여	남녀차이	남	여	남녀차이	남	여	남녀차이
한국	62.7	69.1	6.4	66.9	75.0	8.1	71.7	79.2	7.5
일본	73.5	78.9	5.4	75.9	81.8	5.9	77.1	84.0	6.9
한·일 차이	10.8	9.8		9.0	6.8		5.4	4.8	

자료: 통계청, 생명표: 후생성 대신관방통계정보부·후생통계협회, 간이생명표.

표 13. 50세 1,000명의 특정연령까지의 생존 기대치(1979·1989·1999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1979			1989			1999		
		남	여	남녀차이	남	여	남녀차이	남	여	남녀차이
한국	65	692.5	854.6	23.4	746.1	886.1	18.8	813.3	928.2	14.1
	75	314.4	580.7	84.7	423.1	669.8	58.3	544.0	762.9	40.2
	85	-	-	-	-	-	-	191.3	388.2	102.9
일본	65	857.2	921.9	7.5	872.7	940.5	7.8	885.1	948.2	7.1
	75	605.6	758.8	25.3	665.5	821.5	23.4	688.6	852.0	23.7
	85	217.5	375.4	72.6	293.5	501.2	70.8	339.7	588.5	73.2

자료: 생명표에 의한 필자산출.

표 14. 50세 예비노인 1,000명의 전·후·말기노인 도달기대수의 한·일 비교(1979·1989·1999년) (단위 : 명, %)

분 류	연도	1979		1989		1999		
		성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기노인(65-74세)	남		164.7	23.8	126.6	17.0	71.8	8.8
	여		67.3	7.9	54.4	6.1	20.0	2.2
후기노인(75-84세)	남		291.2	92.6	242.4	57.3	144.8	26.6
	여		178.1	30.7	151.7	22.6	89.1	11.7
말기노인(85세이상)	남		-	-	-	-	148.4	77.6
	여		-	-	-	-	200.3	51.6

자료: 생명표에 의한 필자 산출.

는 한국보다 훨씬 작다. 표 13에서 전·후·말기노인 기대수의 한·일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 표 14인 바, 양국간의 차이는 남·여 공히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또한 전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에, 후기노인보다는 말기노인에 있어서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양국 모두 수명에 있어 성별차가 존재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길지만 양국간의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른다.

4) 장묘(葬墓)문화의 실태

노년인구와 관련하여 지역의 장묘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장묘형식에 따라 사망인구도 생존인구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분묘식은 곧 지역인구의 사망이 인구감소 효과로 나타남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1998년 말 한국의 묘지면적은 약 998km<sup>2</sup>로서 전국토의 1%를 점유하고 있고 매년 약 18만 여기(8.6km<sup>2</sup>)의 새로운 분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장묘관행이 변하지 않는 한, 전국은 15년 내에 묘지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따라서 화장장제문화로의 일대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화장률 변화를 비교한 표 15를 보면 한국의 화장에 대한 인식변화를 엿볼 수 있다. 1971년 겨우 7%였던 화장률이 1995년 20%를 상회하고 1999년에는 30%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해 각각 80%, 99%, 99%로 나타나 매장은 역사적 遺風에 불과하다. 일본은 1948년 '묘지 및 매장취체규칙(埋葬取締規則)'을 제정하여 공영 화장장(公營火葬場)을 전국에 건설하면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는데(중앙장례문화원, 홈페이지) 당시 화장률은 52.5%였다. 1957년에 60%, 1964년 70%, 1971년 80%, 1979년에는 90%를 넘어섰고 최근 1999년에는 99.3%의 화장률

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매장문화가 바뀐 것은 무엇보다도 매장에 대한 혐오감 불식과 정부의 강력한 제도 및 시행력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이 장묘에 관해 처음 제정한 법률은 1961년 12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은 2000년 1월 제정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000)이다.<sup>27)</sup> 어떠한 한국처럼 좁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시행이 중요하나 그 보다도 우선 묘지의 생활공간 잠식력에 대한 위기의식 및 새로운 장사제도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거처럼 조상묘를 부유층의 신분과시로 연계시키는 사고, 음택풍수에의 집착 등 전통답습에서 탈피, 국토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환경친화적 사고개발 등 새로운 전통확립을 수립하는 민주시민의식이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5. 노년인구의 거주선호유형 사례연구 - 설문지 조사 -

1) 설문지 조사의 성격

50세 이상 예비노인과 현재의 노인인구를 대상

표 16.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 구조 (단위 : 명)

연령별	한국	일본	학력별	한국	일본
50-54세	66	78	무학	28	-
55-59세	42	52	초졸	60	13
60-64세	41	36	중졸	43	44
65-69세	30	19	고졸	50	109
70-74세	21	12	대졸	24	37
75세 이상	11	6	대학원졸	6	-
			시지역	98	108
			군지역	113	95
총 수	211	203			

표 15. 화장률

(단위 : %)

연도	1971	1981	1991	1993	1995	1997	1999
한국	7.0	13.7	17.8	19.1	22.0	22.9	30.7
일본	80.5	91.9	97.4	97.9	98.5	98.8	99.3

자료: 김경혜 등, 1997,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향: 보건복지부, 2000, 보건복지백서: 후생성대신관방통계조사부, 후생행정업무보고.

조 해 증

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거주형태의 유형, 장래 또는 현재의 노년생활에 대한 심리상태, 그리고 연령·학력·거주지역(시·군)과의 관계<sup>28)</sup>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설문조사 사례연구지역 및 대상자는 한국의 광주·전남지역과 일본의 히로시마현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이며, 응답자수는 한국 211명, 일본 203명으로 인구구조는 표 16과 같고 조사기간은 1999년 1~2월, 2000년 4~5월과 11월이다.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5이다.

2) 거주선호유형

현재 또는 노후 원하는 거주형태를 묻는 형식으로 표 17과 같이 설문내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별 분포를 표 18에서 보면 한국은 적극적 독립형이 41.7%, 일본은 소극적 의존형이 38.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sup>29)</sup> 이를 의존형(가+나)과 독립형(다+라)으로 2분해서 본다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의존형이며(10%p의 차이), 그 차이는 소극적 의존형에서 온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독립형(17%p의 차이)이며 특히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적극적 독립형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는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적 독립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적어도 자녀에게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자녀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의존형(39.3%) 역시 독립형(44.5%) 못지 않은 분포를 보여 아직도 상당수의 노인이 오랜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적극적 의존형보다는 소극적 의존형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종래의 대가족적 형태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자녀의 의사대로 따르겠다는 위임형(마)은 양국이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거주선호유형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노령화 할수록 적극적 의존형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50대의 48.1%, 60대의 33.8%, 70대 이상의 37.5%가, 일본은 각각 21.5%, 23.6%, 27.8%가 적극적 독립형에 분포함으로써 한국은 50대에 높은 집중분포를 보여 연령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고른 분포를 보이는 편이며 노령화 할수록 약간씩 높아진다. 즉, 노령화 할수록 한국은 적극적 독립형에서 적극적 의존형으로 이행(移行) 해가는 성향을 보이나 일본은 적극적 의존형 아니면 적극적 독립형으로 발산(發散)하는 성향이다. 그리고, 한국은 소극적 의존형에서, 일본은 적극적 독립형에서 고른 연령별 분포를 보인다. 학력별로 보면 한국은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적극적 독립형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학력과 선호유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은 분포율이 매우 낮은 소극적 독립형(시지역 4.1%, 군지역 1.8%)에서만 약간의 차를 보일 뿐, 다른 모든 유형에서 시·군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일본은 적극적 의존형(시 13.0%, 군 8.4%)과 자녀위임형(시 16.7%, 군 11.6%)에서 시·군 지역간에 차이가 난다.

한편, 유형별 이유를 분석해보면, 우선 양국단의 유형이랄 수 있는 적극적 의존형과 적극적 독립형에 응답한 이유는 표 18과 같다. 적극적 의존형의 가장 큰 이유로 양국 모두 '독거(獨居)의 외로움'을 들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20%p나 더 높아서 외로움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 그대신 한국은 '손자가 좋기 때문'(2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겨우 4.5%밖에 안돼 후손(손자)에 대한 집착이 한국보다 훨씬 미약하여 대조적이다. 둘째로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든 것은 양국(한국, 21.7%, 일본 22.7%)이 비슷하다. 한편,

표 17. 유형별 분류

기 호	설 문 내 용	유 형
가	자녀가 원하면 함께 살고 싶다.	소극적의존형
나	자녀가 원하든 원치않든 꼭 함께 살고 싶다.	적극적 의존형
다	자녀가 원하든 원치않든 혼자 살고 싶다.(또는 부부만)	적극적독립형
라	자녀가 원하든 원치않든 사회복지기관에 의존하고 싶다.	소극적독립형
마	나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	자녀위임형
바	기 타	기타형

표 18. 거주선호 유형의 심리상태·연령·학력·지역별 분포 (단위: %)

(한국)									
유형	분포율	심리상태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가) (소극적 의존형)	28.4	A형	22.5	50대	27.8	무학	39.3	시28.6	군28.3
		B형	33.3	60대	28.2	초졸	21.7		
		C형	30.5	70대	31.3	중졸	32.6		
(나) (적극적 의존형)	10.9	A형	7.5	50대	7.4	고졸	32.0	시10.2	군11.5
		B형	8.3	60대	12.7	대졸	20.8		
		C형	18.6	70대	18.8	대학원졸	16.7		
(다) (적극적 독립형)	41.7	A형	51.3	50대	48.1	무학	28.6	시42.9	군40.7
		B형	41.7	60대	33.8	초졸	30.0		
		C형	28.8	70대	37.5	중졸	41.9		
(라) (소극적 독립형)	2.8	A형	1.3	50대	3.7	고졸	48.0	시4.1	군1.8
		B형	5.6	60대	2.8	대졸	62.5		
		C형	1.7	70대	0.0	대학원졸	83.3		
(마) (자녀 위임형)	14.7	A형	17.5	50대	13.0	무학	10.7	시13.3	군15.9
		B형	8.3	60대	19.7	초졸	30.0		
		C형	18.6	70대	9.4	중졸	11.6		
(바) (기타)	1.4	A형	-	50대	0.0	고졸	8.0	시1.0	군1.8
		B형	2.8	60대	2.8	대졸	4.2		
		C형	1.7	70대	3.1	대학원졸	-		
(일본)									
유형	분포율	심리상태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가) (소극적 의존형)	38.9	A형	34.3	50대	42.3	무학	-	시38.0	군40.0
		B형	39.1	60대	32.7	초졸	38.5		
		C형	41.4	70대	33.3	중졸	27.3		
(나) (적극적 의존형)	10.8	A형	14.3	50대	5.4	고졸	42.2	시13.0	군8.4
		B형	8.2	60대	18.2	대졸	43.2		
		C형	13.8	70대	27.8	대학원졸	-		
(다) (적극적 독립형)	22.7	A형	17.1	50대	21.5	무학	-	시22.2	군23.2
		B형	21.8	60대	23.6	초졸	38.5		
		C형	27.6	70대	27.8	중졸	27.3		
(라) (소극적 독립형)	4.4	A형	11.4	50대	4.6	고졸	18.3	시3.7	군5.3
		B형	4.6	60대	5.5	대졸	24.3		
		C형	-	70대	0.0	대학원졸	-		
(마) (자녀 위임형)	14.37	A형	5.7	50대	15.4	무학	-	시16.7	군11.6
		B형	16.4	60대	16.4	초졸	15.9		
		C형	15.5	70대	0.0	중졸	15.6		
(바) (기타)	8.9	A형	17.1	50대	10.8	고졸	13.5	시6.5	군11.6
		B형	10.0	60대	3.6	대졸	10.1		
		C형	1.7	70대	11.1	대학원졸	13.5		

일본에는 전혀 없는 '다른 사람과는 함께 살기 싫어서'가 한국에는 8.7%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일본에 비해서 한국노인의 약간의 배타성을 엿볼 수 있다. '기타'의 이유는 일본(9.1%)에서만 나타나는 바, 예를 들면 의지할 곳이 없다거나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듯하다. 적극적 독립형에서는 한국이 '마음의 자유로움'(46.6%)을, 일본은 '자녀에 대한 폐'(39.1%)를 우선으로 꼽았다. '조용한 삶'에 대한 선호는 한국(27.3%)이 일본(19.6%)보다 더 높다. 한편, '의지할 자식이 없다'는 이유는 한국(1.1%)에 비해서 일본(13.0%)이 월등 높으며 이는 양국간 자녀출산율의 차이와 관련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밖에, 소극적 의존형에서는 한국의 경우 '자녀가 원하는 대로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28.3%)와 '자녀가 싫어할 것 같아서'(26.7%)가 거의 같은 분포를 보이는 데 반하여, 일본은 전자(81.0%)가 압도적이고 후자(2.5%)는 아주 낮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대로하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도 한국은 10.0%이지만 일본은 1.3%밖에 안돼 무시할 정도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결코 배타적 관계를 우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양국 모두 '기타'(한국 18.3%, 일본 12.7%)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확실한 이유를 찾기 어렵거나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적극적 의존형에서도 '경제적 능력'의 이유가 2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여기서도 역시 경제적 압박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극적 독립형은 양

표 19. 적극적 의존형과 적극적 독립형의 이유별 분포 (단위: %)

	이유	한국	일본
적극적 의존형	경제적 능력 때문에	21.7	22.7
	혼자 살면 외로워 못할 것 같아서	43.5	63.6
	손자가 좋아서	26.1	4.5
	다른 사람과는 함께 살고 싶지 않으니까	8.7	0.0
	기타	0.0	9.1
적극적 독립형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46.6	26.1
	자녀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25.0	39.1
	조용한 삶이 좋아서	27.3	19.6
	의지할 자식이 없으니까	1.1	13.0
	혼자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느껴보려고	0.0	0.0

## 조 해 증

국 모두 낮은 분포를 보이며, '자녀에 의존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가 지배적인 이유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좋은 시설'에 대해서 양국 모두 전무한 것은 의외이다. 자녀위임형은 한국(14.7%)과 일본(14.3%)이 같은 수준의 분포를 보이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마음이 편하다'(한국 64.5%, 일본 55.2%), 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다'(한국 25.5%, 일본 31.0%)가 주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독립형은 자신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편이 강한 반면, 의존형은 자녀의 입장 또는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편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적극적 의존형의 이유에서 한국의 시지역이 '독거의 외로움'(50%)을 압도적으로 택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역시 같은 이유(38.5%)를 가장 많이 들었으나 분포율에 있어 시지역보다 훨씬 낮으며 그밖에도 '경제적 능력'(30.8%), '손자 때문'(23.1%) 등 상대적으로 균등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독거의 외로움'이 시지역(64.3%)에서 한국보다 더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경제적 능력'(28.6%)을 들었다. 군지역에서도 '독거의 외로움'(62.5%)이 시지역과 비슷하나 다음으로 '경제적 능력'보다는 '기타(25.0%)'를 들었다. 적극적 독립형의 이유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시·군간에 대차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첫째 이유인 '자식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시 37.5%, 군 40.9%)에서는 대차 없으나 두 번째 이유로 시지역에서 '마음의 자유'(33.3%)를 택한 대신 군지역에서는 '조용한 삶'(22.7%)을 택하였다. 역시 촌락생활의 특성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 독립형에 있어서도 시지역은 '자녀에 의존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75.0%)를 든 반면에, 군지역에서는 이 것(50.0%)외 나머지를 '기타'(50.0%)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3) 노후생활에 대한 근심도

50대 이후의 인구가 현재 또는 미래의 노년생활에 대해 느끼는 근심도(심리상태)를 세 가지 유형, 즉 A형(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B형(불안하지만 걱정되지는 않는다), C형(걱정된다)으로 분류하고 이들 유형의 거주선호유형분포 및 지역·연령·학

력과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앞의 표 18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는 A형의 51.3%, B형의 41.7%가 적극적 독립형에 분포하며 C형은 30.5%가 소극적 의존형에, 28.8%가 적극적 독립형에 비슷하게 분포한다. 즉, 걱정하지 않는 노인(A형+B형)은 역시 적극적 독립형을 추구하고, 걱정하는 노인(C형)은 걱정은 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으로 의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독립거주하고자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A형(34.3%), B형(39.1%), C형(41.4%)의 모든 유형에서 소극적 의존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은 매우 대조적이다. 즉, 일본은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노령자가 자녀에게 소극적이거나 의존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A형이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많은 적극적 독립형에서는 오히려 A형의 분포율이 매우 낮고 소극적 의존형보다 적극적 의존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C형이 적극적 독립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율배반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일본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 결코 미래에 대한 근심도와는 별 상관없는 별개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표 20에서 심리상태유형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전체의 72.0%(A형+B형)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 중 47%는 다소간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걱정하는 편(C형)은 시지역(21.4%)보다 군지역(33.6%)이 월등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A형, 높을수록 C형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이고, 고학력일수록 A형, 저학력일수록 C형이 많아 미래에 대한 근심도는 예상한 바대로 연령에 비례하고 학력과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일본도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인 71.4%(A형+B형)가 걱정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중 76%가 불안감을 갖고 있어 한국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으며, 걱정하는 편은 시·군간에 차이가 없다. 모든 연령층에서 B형이 압도적인 것도 한국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고학력층에서 A형이, 저학력층에서 C형이 많아 양자간에는 대체로 반비례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갖는 현재 또는 미래노인

표 20. 심리상태 유형의 연령·학력·지역별 분포 (단위: %)

구분	유형	분포율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50대	60대	무학	대학원졸	
한국	A형 (전혀 걱정 안함)	37.9	50대	40.7	무학	39.3	시34.7  군40.7
	60대		35.2	초졸	33.3		
	70대		34.4	중졸	30.2		
한국	B형 (불안 하지만 걱정은 안함)	34.1	50대	34.3	무학	17.9	시43.9  군25.7
	60대		36.6	초졸	31.7		
	70대		28.1	중졸	48.8		
한국	C형 (걱정됨)	28.0	50대	25.0	무학	42.9	시21.4  군33.6
	60대		28.2	초졸	35.0		
	70대		37.5	중졸	20.9		
일본	A형 (전혀 걱정 안함)	17.2	50대	20.8	무학	-	시20.4  군13.7
	60대		5.5	초졸	7.7		
	70대		27.8	중졸	9.14		
일본	B형 (불안 하지만 걱정은 안함)	54.2	50대	49.2	무학	-	시50.9  군57.9
	60대		63.6	초졸	61.5		
	70대		61.1	중졸	47.7		
일본	C형 (걱정됨)	28.6	50대	30.0	무학	-	시28.7  군28.4
	60대		30.9	초졸	30.8		
	70대		11.1	중졸	43.2		

의 근심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6. 요약 및 결론

특정지역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구는 핵심적 지표가 된다. 인구는 사회변화과정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를 예측하는 기초적 자료로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지리학에서의 인구에 관한 연구는 인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대개 단일적 요소로서 단일지역의 특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매우 제한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구특성 및 그 수준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우선 인구수가 삶의 질(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발전을 거듭하는 현대문명 앞에 지금의 인구증가는 결코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인구학계의 두 가지 대립개념 -신말사스주의와 풍요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인구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한·일간 인구수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삼림남벌·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물과 식량자원 등 여러 환경요소로 접근해보았을 때, 많은 자료들은 인구과잉이 총체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함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풍요주의에 입각한 과학기술의 대체자원개발도 궁극적으로는 자원으로로서의 한계성을 명제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면 결과는 명백해진다. 과도한 인구성장과 구조적 불균형은 후진적 인구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또한 인구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살펴야하며 이는 총체적 삶의 질과 관련된다.

1960년 한국의 인구탑은 전형적 후진형이었으나 당시 일본은 이미 선진형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한국은 종형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후진형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은 이때 정지형(stationary pattern)을 완료하였다. 한국은 남아선호사상의 잔존으로 출산순위에 따라 출생성비가 높아지는 성(性)선별적 출산행태를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이 같은 출생성비 굴절현상은 없다.

중위연령상의 인구구조를 볼 때, 한국은 1975년에 중년인구국이 되었으나 일본은 1920년에 이미 중년국이 돼 있었고 한국이 중년국이 된 1975년 당시 일본은 노년인구국으로 진입하였다. 한국은 1996년에 노년국에 진입하여 일본에 비해 중년국은 약 55년, 노년국은 21년 늦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한·일간의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의 차는 점차 심화되

고 있다. 인구분포상태를 조인구밀도와 인구접근도를 통해 보면 1960년에는 양국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아져간다. 반면, 지리적 인구밀도나 지리적 인구접근도에 있어서는 일본이 더 높다. 이는 일본의 신기산지 발달과 경지면적의 협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규모상 상위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집중도를 분석해보면 한·일 모두 상위도시의 종주성이 하락, 분산체계화 하고 있으며, 순위-규모법칙으로 보나 Davis지수로 보나 일본은 1970~1980년대에 이상적인 도시순위체계를 갖추었다. 전남(광주 포함)과 히로시마현 사례지역의 인구밀집도를 분석함에 있어 Lorenz곡선의 Duncan 집중지수로 접근해보면 전남은 시·군간에 큰 차이가 있지만 히로시마현은 오히려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균등분포하며 도·촌간의 격차도 적어, 보다 합리적 분포상태를 보인다.

일본은 1945-1950년에, 한국은 1955-1960년에 베이비 붐이 형성됨으로써 양국 모두 종전 직후 5년 사이 베이비 붐을 맞이하고 이후 25년만에 baby-boomer가 baby-producer로 전환함에 따라 2차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난다. 전쟁의 사회현상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양국에 있어서 산모의 출산연령이 25-30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늦둥이' 출산행태는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변화과정중에 한·일 모두 도시인구증가와 촌락인구감소라고 하는 인구역학적 발산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름으로써 선진화해 가는 한국과 이미 오래 전에 선진화 돼있는 일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회현상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구의 관성법칙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사례지역을 통해 본 Wilber의 이동기대치는 전라남도가 11.9회, 히로시마현이 3.7회로 전남이 3배 이상 높다. 광주광역시 17회나 되어 전남보다도 월등 높고 히로시마현보다는 무려 4.6배나 된다. 전남과 광주는 여성이 더 높고 히로시마현은 남성이 더 높은 것도 비교된다. 전남의 남성은 25-29세, 여성은 20-24세 연령층에서, 광주는 남녀 모두 25-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반면, 히로시마현은 양성 모두 20-24세 연령층에서 탁월하다. 생애주기에서 결정적 이동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한국에서는

20대 후반, 일본에서는 20대 초반이 되는 셈이다.

노년인구비로 보면 일본은 1970년에 노령화사회로, 1994년에는 노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한국은 2000년에야 노령화사회가 되었고, 2020년이 넘어야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양국간에는 대략 30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두 나라가 거의 같거나 한국이 약간 빠르다. 그러나 일본은 특히 후기노년인구비가 압도적으로 높아 한국보다 노년화가 오랫동안 진전되었고 그만큼 수명도 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생명표상에서도 확인된다. 양국 모두 수명에 있어 성별차가 존재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작다. 일본이 한국보다 수명이 훨씬 길지만 양국간의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분묘식 장례문화는 최근 화장식 장례문화로 전환해 가는 경향을 띠지만 일본의 99%에 비하여 아직도 3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같은 좁은 국토에서 죽은자마저도 산자보다 더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은 한시바빠 시정돼야 한다. 분묘식은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구감소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 국토이용을 방해하고 국토를 잠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예비노인 및 현재노인들의 자녀와의 거주선호유형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보다 독립적이며, 반대로 일본은 한국보다 의존적이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길 적극적으로 바라는 적극적 의존형의 분포는 양국이 거의 같은 비율(11%)이며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양국 모두 '독거의 외로움'을 들고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일본이 훨씬 심하다. 그밖에 이유로 서 한국의 특성은 '손자가 좋아서'이다. 자녀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자(또는 부부) 살고 싶다는 적극적 독립형의 분포는 한국(42%)이 일본(23%)보다 압도적이며 그 이유로서 한국은 '마음의 자유로움'을, 일본은 '자녀에 대한 폐'를 들었다. 그밖에 한국은 '조용한 삶'이, 일본은 '의지할 자녀가 없음'이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자녀 출생력의 차이와 관련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자녀가 원할 경우 함께 거주하고 싶어하는 소극적 의존형에서 나타나는 이유로서 비교되는 특성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일본이, '자녀가 싫어할 것 같아서' 또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하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질까 봐'는 한국이 압도적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지만 결코 배타적 관계를 우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독립형은 자신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편이 강한 반면, 의존형은 자녀의 입장, 또는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편이 강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노령화할수록 적극적 의존형이지만 한국은 50대에 높은 집중분포를 보이고 일본은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편이다. 노령화할수록 한국은 적극적 독립형에서 적극적 의존형으로 이행해 가는 성향을, 일본은 적극적 의존형 아니면 적극적 독립형으로 발산하는 성향을 띤다. 학력별로 보면 한국은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적극적 독립형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선호유형과 학력과는 무관한 성향을 보인다. 시·군 지역별로 보면 한국은 거의 모든 유형에서 시·군간에 별차가 없으나 일본은 적극적 의존형과 자녀위임형에서 시가 군보다 높다. 적극적 의존형의 이유에 있어서도 한국의 시 지역이 '독거의 외로움'(50%)에 대한 편포를 보인 반면, 군 지역에서는 '독거의 외로움' 외에도 '경제적 능력' '손자 때문' 등 비교적 균등분포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독거의 외로움'에 대한 시지역(64.3%)의 편포가 한국보다 심하다. 적극적 독립형의 이유에서는 한국의 경우 시·군간에 대차가 없으나 일본은 시지역의 '마음의 자유'와 군지역의 '조용한 삶'에서 차이가 난다. 역시 촌락의 생활환경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생활에 대해 느끼는 근심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형(A형),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는 않는 형(B형), 걱정된다는 형(C형)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을 때 한국은 걱정하지 않는 노인(A+B형)은 역시 적극적 독립형을 추구하지만 일본은 모든 유형에서 소극적 의존형을 선호한다. 즉, 일본은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노령자가 자녀에게 소극적이거나 의존하고자 하는 심리상태가 강하다. 결국 일본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일 뿐 결코 미래에 대한 근심도와는 무관

한 것이다. 한국은 전체의 72%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지만 이 중 47%는 다소간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걱정하는 편(C형)은 시 보다 군지역에서 현저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A형, 저학력일수록 C형이 많아 근심도는 예상한 대로 연령에 비례하고 학력과는 반비례한다. 일본 역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노인인구비(71%)는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그 중 76%가 불안감을 갖고 있어 한국보다 월등 높으며, 걱정하는 편은 시·군간에 차이가 없다. 모든 연령층에서 B형이 압도적인 것도 한국과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갖는 50세 이상의 근심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인구노령화의 사회적 문제로서 흔히 노동력 결핍을 드는 예가 많다. 그것은 노년인구에 대한 노동력 부재로 인식하는 통념에서 발생하는 오개념이다. 노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관념적 사고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실상 노인의 노동능력 부재가 아닌, 노인으로부터의 노동력 탈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잘 마무리짓고자 하는 그들의 성취의욕과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노동의 효과를 외면한 채, 노인들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이제 안식(安息)해야 할 때라고 하는 극히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사회통념만으로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한낱 노인문제를 야기하는 주체이자 정리해야 할 객체로서만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인구문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세계 노인의 해'의 주제로서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의 지향'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끝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변화와 혼인연령의 상승, 여성의 취업 기회확대와 결혼의 기회비용증대 등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한 출생력 저하는 인구선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사회현상이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인구에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비록 특정시기, 단기간의 인구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1996년에 이르러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즉, 종래 30여 년간 추진해왔던 인구제한정책을 수정하고 모자보건·



조 해 종

육아·성교육·성비조절 등, 보다 질적 개념중심의 '신 인구교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질' 추구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출생률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관심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구는 아직도 증가를 지속하고 있고 2020년경에야 비로소 정지인구에 이를 것이며 그 때 한국의 인구는 이미 5,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구의 재생산은 무한성을 지닌 반면, 자원은 유한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인구문제에 관한 한, 말사스적 사고는 지당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나와 인구·자원·환경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지역문제가 아닌 전 지구촌의 문제이다.

註

- 1) 두 지역이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안지역으로 인구는 광주·전남이 3,324천명, 히로시마현이 2,881천명(1995년)이며 현의 중심도시인 히로시마시의 인구는 1,108천명으로 광주광역시의 인구(1,257천)와 비슷하다.
- 2) 소득의 증가분을 인구증가분이 흡수해버린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경종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보통 3 : 1의 비율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한국의 지역별 인구규모와 대기오염물 배출량의 순위상관관계를 Spearman 상관계수로 보면 양자간에 정비례적 상관관계가 뚜렷이 입증된다.
- 4)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브라질이나 중국 같은 지역은 열대우림이나 내륙의 오지(奧地), 사막 등을 제외한 Ecumene의 인구밀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산술적 인구밀도가 아닌 지리적 인구밀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5) 'Quality Of Life'의 단축어로 인간은 바로 이 '삶의 질'이 문제가 되며 선·후진지역 구분의 척도가 된다. 근래 인구와 관련한 QOL의 연구가 많은 사례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인구수와 QOL 간에는 역비례관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 6) 배증기간 = (69.3 ÷ 연평균성장률) × 100
- 7)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일반용어는 인구피라미드이지만 이 용어는 초기의 인구증가형(progressive type)을 나타내는 모양을 모식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 인구구조 변화의 다양성을 함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히 연령별 비율로 쌓아올렸다는 의미로서 인구탑(population tower)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 8) 일본의 경우 '遅い子'라고 해서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의

- 일환으로 출산을 늦추는 경우는 있어도 출산을 일단 완료한 부부가 뒤늦게 다시 출산을 하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와 같은 늦둥이는 흔하지 않다.
- 9) 출생성비는 동태통계에 해당하지만 편의상 성비구조에서 다룬 것임.
  - 10) 일반적으로 중위연령이 20 이상이면 중년국, 30 이상이면 노년국이라 한다.
  - 11) 1995년 1월 도시·농촌 복합형태의 통합시 설치로 인하여 승주군이 순천시로, 나주군이 나주시로,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광양시로 통합되었으며,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현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었다.
  - 12) 1995년 15개의 상위도시 가운데 인천을 비롯, 성남·부천·수원·안양·고양·안산 등 수도권 도시가 7개를 점유하고 있다.
  - 13) 광주가 광역시로 분리, 독립되기 이전인 1960년 당시의 전남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1995년 현재의 전남에 광주광역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 14) 1959년의 조출생률은 48.6‰로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 15)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여타의 후진국과는 성격이 다르다.

$$16) r = (n \sqrt{\frac{P_1}{P_2}} - 1) \times 100$$

- $p_1$ : 기준년도의 인구,  $p_2$ : 비교년도의 인구,  $n$ : 기간(년)
- 17) 본 연구결과 1960년의 센서스는 실제보다 수치가 누락되고 1975년의 것은 중복,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의 누락가능성은 金哲(1965)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 18) 그러나 인구변화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 19) 1995년 평균 초혼연령은 한국이 남성 29.3세, 여성 26.1세이고 일본은 각각 30.5세, 27.2세이다(통계청, 1996, 한국의 사회지표: 厚生省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1995, 人口統計資料集).
  - 20) 1945년 최초로 미국노년학회(GSA)가 창립되고 이듬해 노년학회지(Journal of Gerontology)를 창간하였다.
  - 21) 자립(independence)·참여(participation)·보호(care)·자아실현(self-fulfilment)·존엄(dignity)
  - 22) 일반적으로 노년인구의 구성비가 7%~14%일 때 노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노령사회라 한다.
  - 23) 1960년 인구센서스에 의해 계산해보면 무려 3.4%나 되지만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
  - 24) 일본은 정확히 1994년에 노년인구비 14.1%를 기록함으로써 노년사회로 접어들었다.
  - 25) 통상적으로 7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후기노년인구라 부른다.
  - 26) 노령화지수는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노년인구비나 부양비 보다 노령화의 최근 성향을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27) 이 법률이 시행된 것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1년 1월 13일이다. 주용 내용은 묘지 규모의 제한(집단묘지 1기당 10m<sup>2</sup>(3평), 개인묘지 30m<sup>2</sup>(9평) 이하), 묘지사용기

- 간(최고 60년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공설화장 및 납골 시설 의무화, 납골시설 설치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등이다.
- 28) 연령 및 학력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에는 다소 표본 수가 부족한 편이며, 따라서 연구지역의 사례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 29)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사시점의 동거여부와 앞으로의 동거의사와의 분리를 비교조사해야 할 것이다.

### 文 獻

권용우, 1998, "한국도시의 순위규모법칙, 1789-1995," 지리학연구, 32(1), 57-69.

김경혜 등, 1997,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안,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 2000, 2000보건복지백서, 서울, 139-140, 173.

이가옥 · 이현송 · 김정석 · 이미진, 2000, "노년기 삶의 질: 개념 및 지표 구성," 노년기 삶의 질: 지표 개발과 평가(세계 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3-43.

이상돈 역, 1999, 에코스캠, 이진출판사, 서울 (ECO-SCAM: *The False Prophets of Ecological Apocalypse*, St. Martin's Press, New York).

서문희, 1995, "우리나라 출생성비 불균형의 지역차이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15(2), 143-171.

장인협 · 최성재, 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36.

조해중, 1983, "Lorenz곡선의 집중지수에 의한 전남 인구의 집중도 측정과 분석," 지역 개발연구(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15(1), 129-154

중앙장례문화원 홈페이지(<http://www.funeral21.co.kr>)

통계청, 1996 · 2000, 한국의 사회지표.

金哲, 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東京.

王德, 1994, "日本の高度經濟成長における國內人口移動の分析," 季刊地理學, 46, 244.

全國町村會 町村自治研究會, 1989, 高齡社會時代と町村自治 - 「朗年社會」をめざして -, 千里,

東京, 15.

嵯峨座 晴夫, 平成9年(1997), 人口高齡化と高齡者, 大藏省印刷局, 東京, 4.

總務廳, 平成12年(2000), 高齡社會白書, 大藏省印刷局, 東京, 11-30.

總務廳統計局, 平成9年(1997), 我が國人口の概觀, 厚生省大臣官房 統計調査部, 厚生年報 · 厚生行政業務報告.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6, 人口統計資料集.

Bailey, R., 1993, *ECO-SCAM: The False Prophets of Ecological Apocalypse*, St. Martin's Press, New York.

Boserup, E, 1965, *The Conditions of Agricultural Growth*, Allen&Unwin, London.

\_\_\_\_\_, 1981, *Popul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Clark, C., 1967, *Population Growth and Land Use*, Macmillan, New York, 92.

Duncan, O.D., 1957, 1958, The Measurement of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Studies*, 11, 28-29.

Lockwood, M, 1995,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change: the case of Africa, in Sarre, P. and Blunden J.(eds.), *An Overcrowded Worlds?*, The Open University, Oxford, 69.

Moffett, G.D., 1994, *Critical Masses: The Global Population Change*, Viking, NewYork, 100-132.

Peters, G.L. and Larkin, R. P., 1989, *Population Geography*, 3rd. ed., Kendall/Hunt, Dubuque, 70.

Simon, J.L., 1981, *The Ultimate Resour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U.N., 1994 · 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

Weeks, J.R., 1994,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Wadsworth, Belmont, 193.

Wilber, G. W., 1963, Migration expectanc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 444-453.

(2001년 10월 12일 접수)